



##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며

박봉수 <<< 상도중앙교회 담임목사

역사상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나라 안에만 5만여 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교회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고(계 2-3 장), 또 우리의 신앙 경험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인식 속에 목회에 뛰어들어 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있어왔다. 바로 내게 맡겨 주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울러 목회하며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 목회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목회하던 교회가 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 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점이다.

이런 근심과 열망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품게 된다. “과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바로 이 질문이 나의 목회의 기초를 놓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제 그 답을 찾아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탐구하고, 여러 교회들을 탐방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교회다운 교회”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시

작하게 하셨을 때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청사진대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해 주는 교회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1.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바로 성령이시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교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은 성령에 의해 세워졌고, 저들 모두가 다 성령충만한 상태에서 교회를 섬겼다.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가셨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성령 주도적 교회(Spirit-directed Church)이다. 오늘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2. 교회의 기초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받쳐 주는 기초가 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이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베드로가 구제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일곱 집사를 세우고 나서 한 말이다. 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흔들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구제 문제는 집사들에게 맡겨 놓고 자신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 오늘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든든히 놓여야 한다.

### 3. 교회의 기둥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가는 기둥들이 필요하다. 성경 안에서 다섯 기둥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예전(Leiturgia)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말한다. 예배, 예전, 찬양, 기도 등 다양한 영적 사역이 이 기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포(Kerygma)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말한다. 교회 내에서 말씀 선포가 있고, 교회 밖에서 선교와 전도 사역들이 이 기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Didache)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말한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사역들이 이 기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제(Koinonia)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사역을 말한다. 함께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 전 회중이 하나의 공동체로 서 가는 다양한 사역들이 이 기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섬김(Diakonia)이다. 주의 사랑으로 교회 내의 성도들과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말한다. 특히 교회 내의 어려운 교우들을 돌보고, 교회 밖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이 이 기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교회다운 교회들은 이 다섯 기둥이 든든히 서야 한다.

### 4. 교회의 장식

교회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다양한 장식들이 있게 된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상황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창조되는 다양한 교회의 특성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이 세워져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 나름대로의 교회의 질서도 형성될 것이다. 또한 그 교회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벤트들도 있을 수 있다.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들이 되려면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교회의 장식들을 갖추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교회의 기본 청사진은 상도중앙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밑그림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상도중앙교회를 성령 주도적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도중앙교회에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굳건하게 놓이도록 하기 위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다섯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나름대로 창조적인 이벤트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뜻을 모아 힘을 보태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밀어주셔서 지속적인 교회 성장도 이루어 가고 있다. 앞으로 더욱 교회다운 교회의 꿈을 향해 힘차게 앞을 향해 달려 나아가고자 한다.

**:: 박봉수** 한양대학교(B.E.)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 Th.D.)에서 공부했다. 현재 상도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있다.